

2012년 '광학기기 산업기사' 시행 앞서 자격증 활성화 방안 '시급'

기존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대상의 '광학기사'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의 '광학기능사'가 있었다면 2012년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학관련 국가자격증이다. 광학기사 및 광학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응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번 폐지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생겨난 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기회를 통해 광학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사 등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취재/박지연 기자

산업체에서 각종 공정의 진행 또는 정밀측정 및 감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광학기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 보안, 국방 분야에서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광학분야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효율적인 생산, 정비 및 운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1990년 광학기사 자격제도가 생긴 이래 1998년 5월부터 광학기능사 자격이 신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격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응시인원도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주대, 공주대, 단국대, 한남대 등 광학전문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의 주도로 광학기사 응시생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정보기술과 학생들에 의해 그전에는 응시생 하나 없던 광학기능사 자격증이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 학교에서만 22명의 학생이 광학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격증 폐지론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학기기산업기사라는 새로운 자

격제도가 신설되어 이 역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육군·전문대생 포함 연300여명이 광학기기 산업기사 응시 예상

광학기능사는 현장에서의 기능 업무를 담당한다면, 광학기기산업기사는 광학기기의 정비와 전문적인 운용,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맡게 되며, 광학기사는 개발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2012년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는 기존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대상의 '광학기사'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의 '광학기능사' 이외에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학관련 국가자격증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광학기기산업기사 검정 응시인원을 추정해본 결과, 대덕대학 등 전문대학과의 인원 2500여명, 기업체 500여명, 군 관련기관이 500여명으로 전체 35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최소한 연간 300여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광학기기산업기사를 신설하는데 있어 연구책

〈표〉 광학기기산업기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1차 필기시험	광학일반	검정시간 : 총 120분 시험 문항수 : 과목당 20문항 배점 : 각 100점 문제유형 : 4지 택일형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광학기기	
	기초전기전자	
	광기구	
2차 실기시험	광학기기 실무	필답형 검정시간 : 60분 작업형 검정시간 : 240분 배점 : 필답형 40점, 작업형 60점, 총 100점 합격기준 : 60점 이상 합격

임을 맡은 대덕대학 총포광학과의 조현주 교수는 “전문대학에서 광학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준비를 독려하고 있다”며 “육군에서 광학감시장비 정비를 주특기로 하는 병력 250여명도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육군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학기기산업기사는 광학일반, 광학기기, 기초전기전자, 광기구 등의 기초 부분을 필답시험으로 검증하며, 광학계 조립, 검사, 전자계측기 사용법과 관련된 부분을 실기시험으로 검증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수험생에 대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2012년에 처음 치러지는 만큼 기출문제를 담은 수험서도 없는 상황이라 조현주 교수는 현재 수험서를 집필 중에 있다. 이 수험서는 오는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처음 취지한 대로 자격증이 산업계에 정착화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광학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다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써야 할 것이다.

“산업계가 광학관련 자격증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광학기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될 때만 하더라도 많



▶대덕대학의 조현주 교수는 ‘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광학회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은 기대와 전망을 낳았었다. 광학을 이용한 기술은 안경을 비롯하여 확대경, 카메라, 복사기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의료시술용, 레이저응용, 광섬유, 광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2012년 '광학기기 산업기사' 시행 앞서 자격증 활성화 방안 '시급'

사용되는 각종 광학기기들로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광학기기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광학기기를 제작, 조립, 측정, 검사, 확인 등을 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렌즈를 가공, 연마, 제조하는 기능 업무를 수행할 기능인력과 광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광학기능사 및 광학기사 제도가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유명무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학기사와 기능사 자격제도 폐지론이 나오기까지 직접적인 원인 또한 응시자가 적다는 이유다. 응시자가 일부 특정집단에 치우쳐 있고, 현대 및 고전광학기술을 폭넓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으며, 이 때문에 자격증 검정 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가 앞서 자격증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기존의 광학기사 및 광학기능사와 함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먼저 업계에서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주 교수는 "광학관련 자격증의 활성화는 국내 광학산업에 우수인력이 모일 수 있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며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에게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응시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채용공고문에도 광학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펼쳐 학생들이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광학 관련 자격증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렌즈부품업체가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는 것과 자격증을 소지한 고급인력을 채용할 경우 올라가는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력을 갖추



▶타 산업분야의 자격제도와 달리 광학관련 자격증은 국가 지원 전문양성기관이나 사설학원 하나 없이 뜻있는 대학 교수의 지도아래 시험을 준비하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생각을 안한다는 것. 이는 비단 렌즈부품업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광학업계 전반적으로 해당된다.

광학업체에 다니고 있는 한 광학기사 소지자는 "일반 자격증처럼 사설학원도 없는데다 시험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다니는 광학회사의 렌즈설계파트에서 실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향후 이러한 자격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업계에서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의 광학관련 자격증이 일부에서는 '렌즈 연마장이' 양성으로만 인식되어 있었으나 광학기기산업기사의 신설로 광학기사와 광학기능사와 함께 활성화된다면 광산업계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업계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학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사 등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모아 해당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시점이다. 또한 광학관련 자격증 제도에 산학연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